

통권 제11호 93.12

월간항공우주산업동향 통권제11호 매월 15일발행 / 공보처등록 라-6124 1993.7.8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발행

항공우주산업동향

1993.12.

사단
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I. 정부관련시책

■ 과기처, 산하22개 출연기관 특성화방안 발표	1
■ 국방부, 경전투헬기 생산방식 재검토	3
■ 국방부, UH-60 헬리콥터 엔진 조립업체 변경	3
■ 한-불, 첨단산업 협력 강화키로	4
■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예정	5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심포지엄 개최	6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체계 및 국산화방안 조사연구 완료	13
■ 항공우주연구소, “중형항공기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완료	14
■ 삼성항공, 헬기 운항사업 강화키로	14
■ 삼성항공, 多핀 리드프레임 개발	14
■ 대한항공 B737-X 개발참여 약정체결	15
■ 대한항공, 미국 UTC와 광섬유 진단기술 공동개발	16
■ 대우중공업, 러시아에 항공연구소 설립 예정	16
■ 대우중공업-Dornier사, 공동개발 Do-328기 FAA 감항증명 획득	17
■ 한라중공업, MD사에 발사체부품 공급	17
■ 덕산항공·대신금속, 일본에 항공기 부품 수출	18

III.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 중국항공공업총공사 방한	19
■ 환경처, 서해안 대기오염을 항공기로 측정기로	20
■ 93서울국제군수산업전 열려	20
■ 93년도 항공기분야 무역적자 14억달러 예상	21
■ 항공운송 소식	21
■ 한국통신, 지역통신위성 국제공동개발 추진	22
■ 교통부, 94년부터 서울-홍콩간 항공기 증편합의	22
■ 교통부, 국적항공사 노선권 재조정작업 착수	23
■ 교통부, 국내선 공항이용료 20% 인상기로	23
■ 한-대만 항공노선 복구 난항	24
■ 인천시, 소방항공대 설치	24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미국-러시아, 민수용 항공기 합작생산기로	25
■ 미국 Lockheed사 대만에 항공기 부품공장 설립	25
■ 에어버스사, 항공기 주문취소 급증	26
■ 대만 TAC, BAe와 합작계약 취소	26
■ 영국-인도네시아, 항공기·자동차 합작 개발기로	27
■ 일본 방위청, 항공기 해외조달 급증	27
■ IATA, 아시아 항공사들 수송능력 확대 권면	28
■ 유럽항공사 합병 진통	29

V. 회원사 소개

■ 동명중공업주식회사	30
-------------------	----

이 페이지는 여백입니다.

I. 정부관련시책

■ 과기처, 산하22개 출연기관 특성화방안 발표

- 과기처는 산하 22개 출연기관을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 교육·연구기관, 연구·규제지원기관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의 고유기능에 맞게 인력·조직·재원 등을 최적화해 경쟁력있는 국내외 초우수 연구집단으로 육성·발전시키기로 함
-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12월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기관 특성화 방안을 발표, 각 출연기관은 오는 97년까지 특성화 발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과기처는 철저한 기관평가를 통해 우수한 출연기관은 지원을 확대하고 낙오하는 기관은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김장관은 정부출연기관이 지난 70~80년대에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기여해 왔으나 최근 과학기술환경이 급변하고 대학과 민간의 연구개발역량이 신장함에 따라 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변화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으므로 기업이나 대학이 수행하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연기관의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고 지적함
- 김장관은 출연기관이
 - 국가의 전략적 연구개발 공동체의 중심축으로서 원천 과학기술 개발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고
 - 각각 고유기능을 갖도록 특성화하며
 - 과감한 개혁을 통한 연구생산성의 제고로 출연기관이 국가과학기술의 선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힘
- 이날 밝힌 출연기관 특성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시스템공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천문대, 한국항공우주연구소등 13개기관이 연구기관으로 분류됨

-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2개 기관은 교육·연구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정보센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기초과학지원센터, 원자력병원, 원자력환경관리센터 등 7개기관은 연구·규제기관으로 분류됨
- 출연기관의 담당분야는 공공복지기술, 미래원천기술, 공동핵심기술, 국가고유기술, 인력양성, 연구지원 등으로 나뉘지는데 출연기관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연구기관을 주 기능별로 특성화하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인력정책을 쓰며 정예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경쟁에 이길수 있도록 연구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평가결과 나타난 우수 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 세계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이에 97년까지
 - 연구기관의 부서는 현재 10센터 10단 84부 357실에서 13센터 12단 74개부로 개편되고
 - 인원은 6,985명에서 7,906명으로 증원되며
 - 예산은 6,104억300만원에서 1조408억1,100만원으로 증가하고
 - 연구비는 3,006억3,300만원에서 5,311억7,300만원으로 증액됨

■ 국방부, 경전투헬기 생산방식 재검토

- 국방부는 경전투헬기사업(KLH)을 당초의 단일업체 면허생산에서 국내 항공기 제작사의 공동개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91년에 경전투헬기 제작사로 지정된 대우중공업은 최근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면허생산대신 국내공동개발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대형헬기(UH-60)와 비교해 경전투헬기는 제작단가가 낮으나 민수용 헬기 제작사업으로의 기술전환이 용이하여 단순 면허생산보다는 공동개발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 UH-60 헬리콥터 엔진 조립업체 변경

- 국방부는 11월22일 군전력 증강사업의 하나인 UH-10 헬리콥터사업중 96년부터 시작되는 2차사업의 T-700엔진(원제작사 : GE) 조립업체를 대한항공에서 삼성항공으로 변경시킨다고 밝힘
- 90년 9월26일 UH-60 헬기사업을 결정할때 엔진조립은 대한항공에, 부품제작은 삼성항공으로 이원화 시켰는데 엔진 국산화에 일관성 있는 생산체제 유지가 불가능해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항공기 부품제작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직구매대비 130%로 되어있는 국산화장비 구매비율을 현실화 하는등 방위산업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됨
- 현실적으로 직구매대비 130%의 금액으로 국산화하여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 완제품을 수입하여 조립·납품하는 실정임

■ 한-불, 첨단산업 협력 강화키로

- 한-불 양국은 지난9월 미테랑 대통령 방한시 한-불 동상장관회담에서 설립에 합의한 한-불산업협력위원회 1차회의를 11월26일 개최하고 항공우주, 전기통신 등 첨단산업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상공부 통상진흥국장과 프랑스 산업체신대외무역부 산업전략국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전자, 전기통신, 자동차, 항공우주, 환경, 에너지분야의 양국 정부부처 및 기관대표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함
- 우리나라는 전기통신 및 항공우주분야를 우선 협력대상으로 선정, 내년부터 정부 및 민간단체,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모임을 매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 내년 서울에서 한-불테크노마켓을 열어 프랑스의 선진기술과 기술이전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인력(40명정도)을 2-3개월간 연수시키는 것을 제의
- 프랑스는 우리측의 산업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 기술인력의 프랑스 연수는 예산확보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힘

■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예정

- 정부는 중국의 실용화 가능기술을 한국의 자본및 생산기술과 연결하여 상품화하기위한 한중산업기술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공부와 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한-중테크노마트 실무조사단이 중국을 방문, 94년 3월 21일부터 4일간 “한-중테크노마트”를 북경에서 개최기로 함
- 중국은 이를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성과사에 등록된 5,500여개의 기술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매년 등록되는 연구개발 결과중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400여개의 핵심기술을 추출, 이에관한 세부기술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중국은 이와관련 10월에 101개 과제, 11월에 153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협력가능 과제를 추가로 보내올 예정임
- 동 사업의 실무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중국측이 연말까지 제시할 400여개 기술과제에 대한 합작투자 타당성을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분석해 국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며 테크노마트 참가신청을 94년2월까지 접수할 예정임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심포지엄 개최

◆ 개 요 ◆

1. 일 시 : '93. 12. 14 14:00-17:00
2. 장 소 : KOEX 대회의실
3. 참석인원 : 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관계 등 150여명
4. 진행순서

< 제1부 주제발표(14:10 - 15:30) >

- 1) 중형항공기 개발 타당성 분석
이승리 실장(항공우주연구소)
- 2) 중형항공기 개발 전략
조옥찬 교수(인하대학교)
- 3) 중형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통상관계
박중구 실장(산업연구원)

< 제2부 종합토론(15:45 - 17:00) >

- 사 회 : 홍재학 박사(항공우주연구소장)
- 토론자 : 홍창선 교수(KAIST)
이감열 과장(상공부 국제협력담당관)
한만섭 박사(삼성항공 연구소장)
조효상 전무(대우중공업)
박기찬 박사(대한항공 교통산업연구원 부원장)
강경호 부사장(한라중공업)

◆ 주제 발표 내용 ◆

1. 중형항공기 개발타당성 분석 (항공우주연구소 이승리 실장)

가. 국내개발 목표

(1)목 표

- 국내항공기술의 도약 (21C 대형여객기 국제공동 개발에 참여)
- 판매 가능한 항공기의 개발(국가예산의 사용→국민복지기여,수입역조 개선)

(2)필요성

- 국내항공기술의 도약
 - 국내항공산업의 발전 ('82 - '92)
생 산 액 : 4,400억원(11배), 이중 40% 수출
업 체 수 : 31개 (15배)
종업원수 : 6,300여명(9배)
 - 기술수준 : 외국 업체의 하청생산-단순 임가공 수준, 설계.개발기술 미흡
→ 항공산업의 특성인 고부가가치를 창출치 못하고 있음
- 수출 유망산업으로의 육성
 - 고부가가치성 첨단기술 산업구조로 고도화→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
 - 20억불에 달하는 항공기 부문의 수입 역조 개선
- 국내 중.단거리 항공수송 수요의 대폭적 증가에 대응
 - 사회전체의 Mobility증가(국민소득 향상)
 - 분산형 도시화의 진행(지방자치체제의 활성화)

나. 개발 기종

(1)성능 및 제원

- 50인승, 쌍발 Turbo-Prop엔진, 동아시아의 대도시 연결
- 수송/군용/소방기로의 개조 용이
- 최대 순항속도 : 283Knot
- 최대 항속거리 : 1,134NM(동경, 북경, 블라디보스톡)

(2)선정이유

- 개발비용 부담 측면
 - 개발비는 순항속도와 좌석수에 비례
 - 중형항공기 개발비 소요 : 2,500억원 (3억 1천만불)
-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측면
 - 40~50인승급 : 수요증가 추세(26.2%)
 - 많은 경쟁자 있으나 기존 모델은 2000년대초에 이미구형화 (신규모델 개발은 3기종 뿐임)
 - 60인승급 이상은 TURBO-FAN기가 주류임
 - 종진국. 개발도상국의 성공사례 : 인도네시아, 브라질, 스페인
- 기체확장(Stretch)의 경우가 기체 단축의 경우보다 보편적 추세
 - 좌석.마일당 운영비 : 확장이 단축보다 저렴
 - 거대 제작사와의 경쟁은 무리 : B737-500, MD-95, A319
- 국내기술 능력측면
 - 부분적 기술도입을 통해 개발가능

- 공항 건설비 소요 측면
 - 중형항공기 이륙활주거리 : 1,100m 정도→국내기존 활주로 이용 가능
 - 1,100m 이상 국내 비행장 : 35개소
 - 대형항공기 이착륙 가능 (2,700m이상)활주로 : 15개소
- 본 중형항공기 개발. 판매 성공후 70인승급으로 Stretch-up 하는 것이 유리

(3)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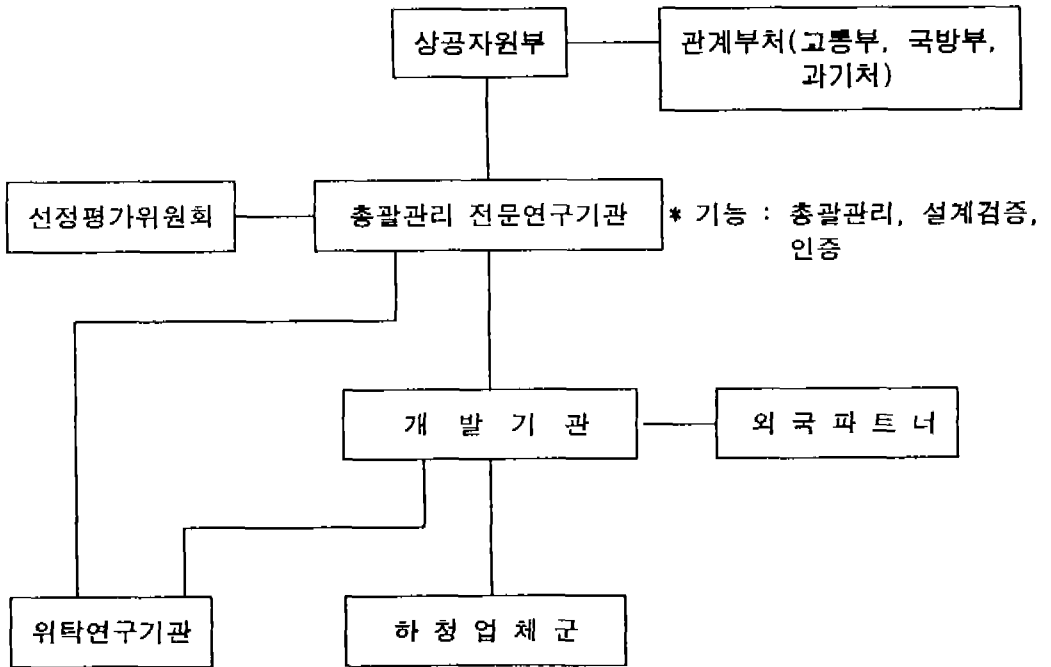
- 사전조사 : 1년('93), 시제개발기간 4년('94-'97), 비행시험 및 양산 준비 기간 1년('98)
- 총 소요예산 : 2,790억원 소요 추정
 - 2,540억원 : 시제개발, 비행시험, 양산준비
 - 250억원 : 개발지원에 필요한 대형시험 평가설비 구축

<추진일정별 소요예산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97	'98	합 계
정 부 부 담	75	480	405	155	140	1,255
민 간 부 담	45	300	550	240	150	1,285
합 계	120	780	955	395	290	2,540
대형시험평가설비	-	140	60	50	-	250

다. 국내개발기관 구성방안



(1)제1안 : 主导社(Leading Company) 중심의 민간 컨소시엄(주식회사) 구성

- 사 유
 - 정부 지원 명분 확실, 특혜시비 배제
 - 과당경쟁 지양과 이에 따른 투자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산업계 전체의 기술력 향상
 - 참여업체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기 보유시설 이용 가능
 - 주도사가 컨소시엄의 구심점이 되므로 사업 추진력 보강

(2)제2안 : 主導社(Leading Company) 중심의 민간 컨소시엄

(주식회사 : 지분 10%정도의 정부나 정부 투자기관의 출자) 구성

- 사 유
 - (제1안)의 사유 이외에 국제 공신력 확보로 국제협력 용이
 - 참여업체간 의견대립시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조정 가능
 - 정부출자 지분이 적으므로 (10% 정도)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배제

2. 중형항공기 개발 전략 (인하대 조옥찬 교수)

가. 기술개발 목표

- 항공기 개발기술의 grade-up, 종합화, 국제화를 통해 기술능력 향상, 확보
-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10위권 진출 - 첨단공업 기술에 의한 국력신장

구 분	현수준	달성목표	달 성 방 법
풍동 시험 기술	30%	90%	해외업체와의 공동작업
구조 시험 기술	40%	80%	해외업체와의 공동작업및 독자개발
추진계통시험기술	30%	80%	해외업체와의 공동작업
비행 시험 기술	20%	70%	해외업체와의 공동작업

나. 개발방식 : 2~3개국 국제공동개발 방식

- 사 유
 - 중형항공기 개발의 목표
 - 민간 상업용 항공기 개발, 중형항공기 개발의 기술수준
 - 위험부담, 성공가능성
 - 시장진출

3. 중형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통상관계 (산업연구원 박중구 실장)

가. UR의 보조금 종류

- 금지 보조금
- 조치가능(상계가능) 보조금
- 허용 보조금

나. UR 협정이 중형항공기 개발에 미치는 영향

(1) 50인승급 중형항공기는 마찰소지 적음

- 무역마찰 주대상은 100인승 이상급 대형민항기
- 유럽 중형항공기와 운항거리, 여객수 차이없을시 마찰 예상

(2) 향후 마찰대상시 생산, 기술개발 부문 지원 곤란

(3) 국제간 공동개발 규제 가능

다. UR 대응한 항공기산업 육성방안

(1) 국내 항공기산업의 조속 육성(UR 이후 기술개발정책이 통상 마찰의 대상 예정)

(2) 개도국간 국내시장 수요를 대상으로한 항공기의 공동개발 추진

(3) UR 이후 이용가능한 산업지원제도

- 허용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 성격으로 전환
- 기술개발 금융지원
 - 내용상, 특정적 성격(국내, 국외 구분) 배제
 - 특정성 있을시 응용기술의 경우 정부보조액이 연구개발비의 25% 이하 지원
-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특정 연구개발사업, 공업발전기금은 상계 조치 가능

-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 국산기자재 사용 우대세율부분 제거
- 기술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 원칙적 금지보조금이나
 - 외화 표시자금은 외국산기계와 국산기계에 무차별 적용
 - 국산기계 구입시 적용되는 우대조항 제거
 - 산업은행의 기계설비자금중 국산기계와 외국산기계에 대한 차별조항 삭제
- 기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 국산기자재 사용 우대세율 부분을 각 조항에서 제거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체계 및 국산화방안 조사연구 완료

- 항공우주연구소는 12월2일 협회가 의뢰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체계 및 국산화방안 조사연구를 마치고 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주협의회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 하였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97년까지 실용위성의 개발을 9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98년까지는 정부주도로 과다경쟁과 중복투자를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99년부터는 기업주도로 세계시장에 본격진출한다는 전략임
- 업계에서는 1단계 정부주도로 개발시 대부분 연구가 연구소 중심으로 수행되어 각 기업은 부품생산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개발초기부터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개발될 위성은 6각기둥구조로(250~350kg) 400~800km의 고도에서 3년~5년간 지구관측, 과학탐사, 통신시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항공우주연구소, “중형항공기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완료

- 항공우주연구소는 11월 30일 상공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중형항공기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하였음
- 국내 업계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 보고서는 12월14일 열린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거쳐 상공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임
- 항공우주연구소가 제출한 컨소시엄 형태의 개발체계는 국내 항공기제작업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지는 않으나 제1대 주주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지 못한 주력기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삼성항공, 헬기 운항사업 강화키로

- 삼성항공은 내년부터 97년까지 30여대의 헬기를 도입하고 조종사 90여명을 확보, 국내 헬기운송사업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12월2일 발표함
- 그 첫사업으로 94년2월 서울-용인자연농원을 잇는 헬기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 삼성항공, 多핀 리드프레임 개발

- 삼성항공은 반도체칩의 다리가 500개 이상인 다핀 리드프레임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힘
- 이번에 개발한 504핀 리드프레임은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주문형 반도체와 LCD 드라이브,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주로 이용되는 고급기술로

일본만이 92년도에 개발에 성공한것

- 동사는 이를위해 92년8월부터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고 7명의 연구전담인력과 2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였음

■ 대한항공 B737-X 개발참여 약정체결

- 일 자 : 93. 12. 13 (월)
- 체결자 : 대한항공 조양호 사장, 보잉사 론-우다 사장
- 내 용 :
 - 참여기종 : B737-X 시리즈 (3개 기종)
 - 참여분야 : 날개부분 독자 설계, 생산 (Spoiler, Flap)
 - 총물량 금액 : 2,500대분 (3억달러)
 - 추진일정 : 94년 5월부터 생산, 96년 1월 제1호기분 납품
- 대한항공 참여배경
 - 86년부터 보잉사에 B747 300여대분 부품 납품
 - B777 날개부품 납품

◆ B737-X 사업 ◆

- 배 경 : MD-90과 A320 기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 목 적 : 저소음성, 안락성, 경제성, 정비성 향상
- 주요제원 :
 - 탑승인원 : B737-200X (108명)
B737-300X (128명)
B737-400X (180명)
 - 순항속도 : 약 490 km/h
 - 항속거리 : 5,450 km

■ 대한항공, 미국 UTC와 광섬유 진단기술 공동개발

-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United Technology사와 제트엔진 및 헬리콥터의 부품에 사용되는 복합재의 진단도구로 광섬유센서를 공동개발키로 합의
- 11월19일 UTC의 국내 홍보대행업체인 Communications Korea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UTC사는 이달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워크샵에서 항공산업분야에 사용되는 복합재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진단방식으로 광섬유 센서 기술을 공동개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대우중공업, 러시아에 항공연구소 설립 예정

- 대우중공업은 러시아와 항공관련 협력사업 및 기술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스크바에 항공기술연구센터를 94년 상반기중 설립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음
- 동사는 우선 50명의 연구인력으로 러시아와 헬기공동생산 등을 수행할 계획임
- 대우중공업은 93년6월 러시아의 카잔사 및 Mil 설계국과 28인승 헬기를 94년도부터 공동 생산키로 합의한 바 있음

■ 대우중공업-Dornier사, 공동개발 Do-328기 FAA 감항증명 획득

- 대우중공업이 독일 도니어사와 위험분담방식으로 공동개발한 Do-328기가 미국 FAA의 감항증명을 획득하였음
- 동사는 89년7월 항공기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 91년12월 1호기를 조립하여 91년5월 처녀비행하였으며 92년10월 유럽항공관리국(JAA)의 감항증명을 획득한 바 있음
- 대우중공업이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은 26대 분이며 전체 주문중인 80대분을 포함 약400대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라중공업, MD사에 발사체부품 공급

- 한라중공업은 11월18일 충북 음성 소이공장에서 위성체 발사용 로켓의 Payload Attach Fitting을 국내 최초로 제작하여 미국 MD사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 동사는 92년 7월 한국통신공사의 무궁화위성 발사 용역업체인 MD사와 위성체의 궤도진입용 로켓의 부분품 제작 및 관련기술 전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15개월만에 PAF 제작을 완료하여 예정보다 1개월 빨리 인도하게 된것
- Payload Attach Fitting은 위성체와 발사체가 연결되는 부분의 원통형 부품으로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할때 위성체가 발사체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것

■ 덕산항공·대신금속, 일본에 항공기 부품 수출

- 덕산항공과 대신금속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B757, 767기의 동체부품 2종을 납품키로 합의하고 기술신뢰검증을 완료하였음
- 이는 엔고에 시달리는 일본이 부품생산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수입을 늘리고 있어 향후 부품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덕산항공과 대신금속이 가공하는 부품은 협력 모기업인 대우중공업에서 표면처리 및 도장처리후 납품될 계획인데 항공기 부품의 생산단가는 한국이 일본보다 40~50% 저렴한 것으로 알려짐
- 대신금속이 94년부터, 덕산항공이 95년부터 각각 공급하게 될 물량은 소액으로 일종의 샘플테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엔고가 계속되고 B777기가 양산에 돌입하면 추가주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III. 국내 항공우주산업동향

■ 중국항공공업총공사 방한

- 중국항공공업총공사 부총경리(차관급) Wang Ang을 단장으로한 방한단 9명이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의 초청으로 11월21일'30일까지 10일동안 방한하여 정부, 업계, 연구소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였음
- 한~중 중형항공기등 민간항공기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키위해 방한한 이들 일행은 11월21일 서울에 도착하여 대한항공(김해공장), 대우중공업(창원공장), 삼성항공(사천, 창원공장)을 순서대로 방문하고 26일 항공우주연구소를 방문한후 27일 서울국제군수산업전을 방문하였음
- 출국 하루전인 29일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를 방문하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30일 출국하였음
- 이번 방한기간중 29일 삼성항공과 중국항공공업총공사는 50-100인승급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관련업무를 위해 북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대우중공업은 100'130인승급 면허생산계획을 구체화하여 '아시안익스프레스사'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환경처, 서해안 대기오염을 항공기로 측정기로

- 환경처는 서해안의 황사와 대기오염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이라고 11월20일 밝힘
- 1996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대학교, 국립환경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동 사업에 한국항공의 소형항공기를 임차하여 대기측정이 가능하게 개조한후 95년부터 황사 및 아황산가스 등 가스상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96년부터는 장거리이동의 대기오염물질 총량및 오염물질의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

■ 93서울국제군수산업전 열려

- 93서울국제군수산업전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음
- 국방부가 후원하고 한국종합전시장, 한국테크노벤처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86개 업체가 참가하여 항공기등 첨단 군수물자를 소개하였는데 항공우주분야에는 7개국에서 28개업체가 참가하였음
- 전시회에는 미국의 Lockheed, Huges, 영국의 British Aerospace, 프랑스의 Dassault, Aerospatiale, 독일의 DASA등 국제적 회사가 참가하여 항공기, 미사일, 전차등과 유도장비, 전자장비, 통신장비 등 첨단군사장비를 실물과 모형으로 전시하였음
- 격년으로 개최되는 서울국제군수산업전은 금년이 2회째로 국내참가업체는 삼성항공, 한국로스트왁스공업 등 9개사에 그쳐 외국업체에 비해 참가율이 저조하였으나 삼성항공이 180여평의 부스에 F-16전투기와 그 조립공정을 소개하는등 국내업체로 가장 적극 참가하였음

■ 93년도 항공기분야 무역적자 14억달러 예상

93년1월부터 9월까지의 항공기와 그 부분품 수입액이 15억2,900만\$인데 수출액은 중고항공기와 하청생산 부분품 수출을 포함하여 2억4,000만\$에 그쳐 12억8,9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연말까지 무역적자는 1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항공운송 소식

◆ 아시아나항공, 11월18일 탑승객 2천만명 돌파

아시아나항공이 출범 4년11개월만에 승객 2천만명을 돌파하여 11월18일 국제선 제2청사에서 승객 2천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가짐

◆ 항공보험료 대폭 인상

- 11월2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아시아나항공의 94년도 항공보험료가 1,195만달러로 93년보다 48.2%가 인상된 것으로 발표
- 10월말 갱신된 대한항공의 보험료는 29%인상된 2,930만달러인데 아시아나항공의 보험료가 인상폭이 큰것은 지난 7월 발생한 목포추락사고 때문임

■ 한국통신, 지역통신위성 국제공동개발 추진

- 한국통신은 95년 무궁화위성 발사후 2단계 위성기술확보와 위성통신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위성기술 보유국가와 중형 지역통신위성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위성사업단의 공동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이전이 용이한 중국같은 나라와 500~1000kg급 중형 실용위성을 공동개발하여 99년쯤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나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여러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교통부, 94년부터 서울-홍콩간 항공기 증편합의

- 교통부는 11월29일 홍콩과 항공회담을 갖고 서울-홍콩간 항공기 공급석을 양측모두 주당 5,350석에서 94년1월부터는 5,950석으로 600석을 늘이고 7월부터는 700석을 더 추가해 6,650석으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함
- 이런 결정은 10월까지 홍콩 관광객의 국내입국이 92년도 같은 기간보다 93%나 증가하였고 내국인의 홍콩 방문도 23%나 증가하고 양국간 항공기의 탑승율이 90%를 유지하는등 항공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

■ 교통부, 국적항공사 노선권 재조정작업 착수

- 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권 재조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로 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교통부는 동 지침의 개정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세계항공 동향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최근 보고서를 접수하였음
-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은 국적항공사가 2개로 늘어나면서 양 항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90년10월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기존노선에서의 양사의 운항횟수, 신규노선의 취항 및 운항횟수, 지역별 노선배분원칙 등이 주된 내용으로 시행된지 3~5년이 지나면 상황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0월부터 개정문제가 거론되었음

■ 교통부, 국내선 공항이용료 20% 인상키로

- 교통부는 현재 1인당 1천원씩 받는 국내선여객 공항이용료를 94년부터 3천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하고 공항주차요금도 30분당 5백원에서 1천원으로, 항공사가 지불하는 공항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도 20~30% 상향조정할 예정
- 이같은 공항이용료 인상은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책의 일환으로 연간 500억~6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대만 항공노선 복구 난항

- 한국과 대만간 국교단절로 취항이 금지되었던 항공노선이 양국간 비공식 관계수립으로 금년중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만노선의 재취항은 중국측의 양해를 받은 뒤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중국과의 항공회담이 관제 이양점 문제로 결렬되어 한-대만간 노선의 복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천시, 소방항공대 설치

- 인천시는 11월16일 3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헬기 1대를 구입해 고층 건물 화재나 섬지방의 인명구조, 방역활동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 이를위해 쌍발 헬기 1대를 구입하고 소월미도에 헬기장을 설치하여 94년 10월경 소방항공대를 발족, 운영에 들어갈 계획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미국-러시아, 민수용 항공기 합작생산키로

- 러시아 항공기업체 일류신 설계국은 미국 2개사와 합작으로 대형 여객기를 생산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
- 이에따라 항공기분야에서 러시아와 서방업체간의 합작이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됨
- 일류신사는 자체설계한 기체에 미국 P&W사의 엔진과 Rockwell International社가 제작한 항행장치를 장착한 375인승 제트여객기 IL-96M을 생산중이라고 말함
- IL-96M의 가격은 대당 7천만달러 정도로 현재 Airbus사의 340인승 기종인 A-340에 비해 3천만달러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짐
- 일류신사는 러시아의 기체제작 기술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서방규격에 부합하는 항공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작배경을 설명
- 한편 P&W사와 Rockwell사는 일류신과의 합작생산을 통해 러시아내 민수용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 미국 Lockheed사 대만에 항공기 부품공장 설립

- F-16 전투기 생산업체인 Lockheed사는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총6억1천만달러를 투자, 대만에 항공기 부품및 보수공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에어버스사, 항공기 주문취소 급증

- 에어버스사는 12월1일 세계 항공업계의 심각한 불황의 여파로 올해 주문 취소가 신규주문보다 20여건이나 더 많았다고 밝힘
- 장 피어슨 에어버스 사장은 United Airline에 대한 A320 중형여객기 50대 중 1차 인도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같은 현상은 지난 83년 이후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함
- 그는 보잉사와의 시장점유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에어버스의 점유율 30%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5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대만 TAC, BAe와 합작계약 취소

- 대만항공우주사(TAC)는 British Aerospace와 합작으로 단거리 여객기를 생산키 위한 7억7,500만 달러의 말썽 많은 계약을 공식 취소함
- 11월12일 대만의 연합보는 “BAe와의 의견차이를 해소할 전망이 없다”는 TAC 회장의 말을 인용하고 TAC측은 다른 외국 파트너를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함
- BAe와 TAC(29% 정부소유)는 93년1월 50:50의 합작으로 75석 및 115석 지역형 항공기를 생산하는 협정에 서명한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그러나 합작추진 협상은 자금조달과 BAe측의 신형항공기 기술이전 거부로 난항에 빠진데다 대만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예산낭비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운동을 벌였음
- TAC는 92년 MD사와 20억달러 규모의 합작사업 계획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취소된 바 있음

■ 영국-인도네시아, 항공기·자동차 합작 개발키로

- 영국의 BAe와 인도네시아는 25일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터보프롭 항공기와 자동차를 공동개발키로 했다고 발표
- BAe의 덕 에반스 회장과 인도네시아의 잉 하비비 과학기술장관은 지난 11월23일 최종회의를 가진 후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하였음
- 또 BAe의 자동차관련 자회사인 로버그룹은 인도네시아 전략산업청과 협력,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자동차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새로 개발되는 자동차에 자사의 K엔진을 장착할 계획
- BAe가 인도네시아와 손잡기로 함에 따라 지난 1년간 대만 TAC와의 항공기 합작 생산 모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임

■ 일본 방위청, 항공기 해외조달 급증

- 일본 방위청의 93년도 항공기 조달규모는 국내 및 해외가 각각 1,894억엔과 1,173억엔이 될 전망
- 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90'94년도 방위청의 항공기 조달계획 추이에서 90년도 조달액은 국내 3,553억엔, 해외 42억엔으로 해외비중이 1%에 불과했으나 미·일간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에 힘입어 93년도엔 국내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1,894억엔, 해외가 30배 가까이 증가한 1,173억엔으로 1/3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힘
- 94년도에는 해외조달이 1,139억엔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방위비 지출삭감과 해외조달비중 확대로 일감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IATA, 아시아 항공사들 수송능력 확대 권면

- 아시아 항공사들은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조만간 장기적인 수용능력확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경우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한 관리가 경고
- 홍콩에서 개최되는 항공안전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중인 노르만 잭슨 IATA기술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아시아태평양은 현재 공항 및 영공의 포화상태로 더이상 발전이 어려운 유럽과 같은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홍콩, 방콕, 시드니 등이 공항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함
- 한편 미국 항공안전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항공사고가 10년내에 두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항공안전 관계자들은 중국등 아시아국가에 항공재난을 줄이기 위한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2월4일 발표한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서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방지대책”에 따르면 사고발생 빈도의 지표인 비행시간 10만시간당 사고발생 건수는 87년 0.42건에서 89년에는 0.88건으로 2배이상 늘어났으며, 91년에는 0.71건에 달해 세계평균 0.11건의 6.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비행거리 1억km당 사망사고 건수도 87년 1.27건에서 89년에는 2배이상 증가하였고, 91년도에는 1.03건에 이르러 세계평균의 5.7배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음

■ 유럽항공사 합병 진통

- 유럽 4개 항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연합항공사 신설계획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 스위스에어, 네덜란드의 KLM, 오스트리아에어라인, 스칸디나비아항공 등 유럽 4개 항공사 관계자들은 최근 스톡홀름에서 극비리에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측 상대 항공사 선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함
- '알카자르' 프로젝트로 명명된 유럽항공사 합병작업은 92년12월에 시작돼 합병 때 참여기업의 지분을, 본사 소재지, 대표간사기업 선정 등 합병에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사항 타결되었으나 마지막 쟁점인 미국측 항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KLM은 노스웨스트항공을 고집하는 반면 스위스에어는 델타항공을 주장하고 있음
- 두 항공사가 이처럼 각각 다른 미국 항공사를 상대로 선호하는 이유는 KLM은 노스웨스트의 모기업인 왕스 홀딩스의 20% 지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노스웨스트와 항로개방협정을 맺고 있어 노스웨스트를 상대로 결정할 경우 미국 전역을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 스위스에어는 미국쪽 상대 항공사로서 노스웨스트가 재정적으로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스웨스트의 2배 규모이고 미국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델타항공이 더 적합하다고 맞섬
- 스위스에어는 또 KLM과 노스웨스트가 맺고 있는 항로개방협정이 합병으로 출범할 유럽항공사에 대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영업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능력면에서 앞서는 델타항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V. 회원사 소개

■ 동명중공업주식회사



◆ 개요 ◆

- 동명중공업주식회사(대표 최규철)는 경남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A-2블럭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15,000평에 8,700평의 건물에 510여점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595명이 있음

◆ 연 력 ◆

- 74년11월 동명산업(주) 기계사업부로 발족하여 77년1월 상공부로부터 유압기계 전문업체로 지정받았으며 동년12월 현재의 동명중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 79년 12월에 K1 군수업체로 상공부의 지정을 받은후 83년7월 방산 유압장치 주전문업체로 지정되어 K1및 K-55포 및 포탑 유압장치를 본격 생산하였음
- 그동안 동명중공업은 85년 산업재해 예방 대통령상을 포상하고 91년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을 받았으며 91년에는 노사화합우수업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93년에는 노사모범 노동부 표창을 수여하였음

◆ 사업내용 ◆

- 동사는 K1전차의 포 및 포탑 안정화 구동장치와 K55자주곡사포의 유압 및 장전장치, K-200 장갑차의 제동장치와 환향장치등 군수용 유압장비를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 항공분야로는 UH-60헬리콥터의 유압공급장치를 제조하고 있음

항공우주산업동향

통권 제11호 등록번호 라-6124 1993년 12월호 (매월1회발행)

발행인 : 이 대 원
편집인 : 곽 병 구
인쇄인 : 김 해 동
발행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 획 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6 대지빌딩
TEL : 553 5681/2 FAX : 553 5683

(비매품)